

21세기 한국과학기술인의 생존전략

김한중

고등기술연구원

한국은 지금 정치, 경제,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인 정서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. 즉, 제도와 의식의 양면에서 능력과 보상을 연계시키는 서구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있으며, 이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방향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. 현 한국의 상황은 80년대 미국의 경제, 특히 산업경쟁력의 추락에 의한 위기상황과 흡사하다는 데서 그 맥을 찾을 수 있기에 미국의 위기 탈출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방향과 과학 기술인의 생존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.

과학기술인의 본분은 경제활동의 한 input으로서 반드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며, 그 본분이 지켜질 때 존속이 가능한 것이다. 더구나 책임경영체제하에서 결과에 대한 계량화와 그에 따른 보상은 필수적인 과정으로서, 일본의 시장공략으로 위기에 빠진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또 기업의 생존차원에서 이를 강화하였다. 자유분방했고 막연한 연구개발관리의 관행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국가나 기업의 이익과 연계성을 조직화한 노력은 그 결실이 현재 증명되었지만 과학기술인으로 하여금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였다.

우리나라 과학기술인도 예측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과거의 정서로 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연구개발관과 생존전략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며 그 요소들을 제공하고자 한다.